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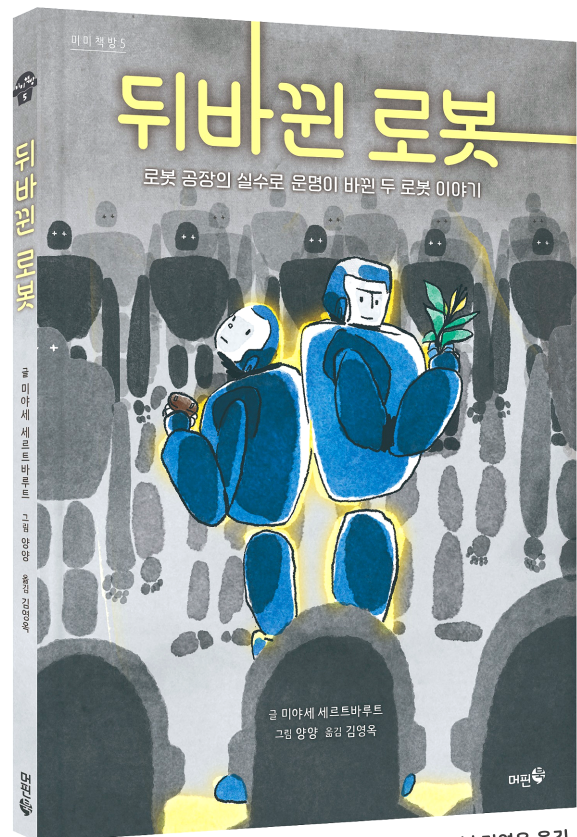
마음을 살찌우는
맛있는 책읽기, 미미 책방

핵심 키워드

#로봇 #전쟁 #평화 #인간성
#윤리 #주체성 #용기 #연대
#생명존중

관련 교과

국어 5-1 2. 작품을 감상해요
국어 5-2 1. 공감하며 대화해요
국어 6-1 6. 내용을 추론해요
국어 6-1 2. 이야기를 간추려요
국어 6-2 1. 작품 속 인물과 나
국어 6-2 5. 글에 담긴 생각과 비교해요



미야세 세르트바르트 글 | 양양 그림 | 김영옥 옮김
160쪽 | 15,000원 | 초등 고학년 동화

책 소개

로봇 공장의 실수로 운명이 바뀐 병사 로봇과 정원사 로봇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두 로봇의 뭉클한 여정

바르바와 크리코는 같은 공장에서 생산된 로봇입니다. 한 로봇은 총을 드는 병사이고, 다른 로봇은 식물을 가꾸는 정원사지요. 그런데 공장의 실수로 두 로봇의 꼬리표가 바뀌고 맙니다.

순식간에 전쟁터로 내몰려 지뢰를 설치해야 하는 바르바와 대통령 관저 정원에서 일하며 전쟁의 이면을 깨달은 크리코는 절망과 분노가 몸 안에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끼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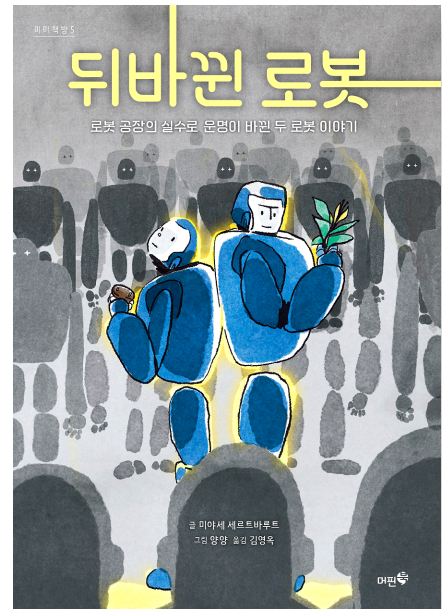
둘은 각자의 자리를 찾아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 두 로봇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뒤바뀐 로봇》은 어쩌면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두 로봇의 선택을 통해 전쟁의 무의미함과 평화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동화입니다. 끝날 줄 모르는 전쟁에 모두가 절망하는 순간에도 희망을 놓지 않고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려 분투하는 두 로봇의 여정이 먹먹한 여운을 전합니다.

I. 책을 읽기 전에

- 책 표지를 살펴보고 아래 물음에 답하세요.

1. '로봇 공장의 실수'는 무엇이였을지 짐작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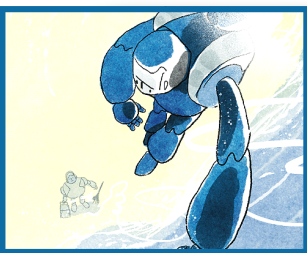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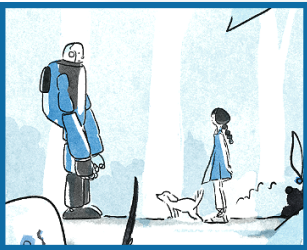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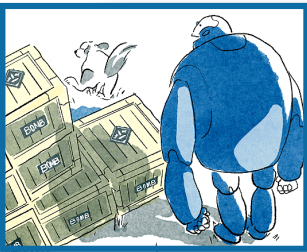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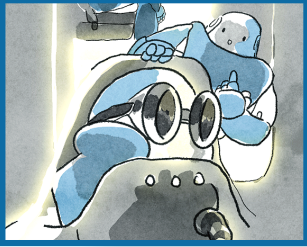


2. '로봇'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나 생각을 자유롭게 써 보세요.

3. 서로 등을 맞댄 두 로봇은 각각 지뢰와 나뭇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상상해 적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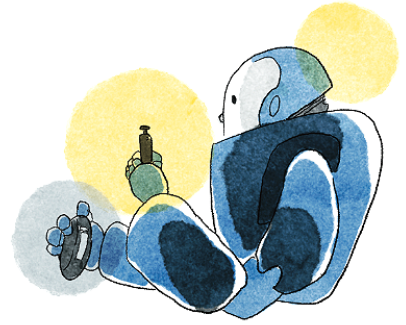
Ⅲ. 책을 읽으면서

1. 다음 장면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간단히 적어 보세요.



III. 책을 읽으면서

2. 바르바는 바람 마을에 지뢰를 심으라는 본부의 명령에 불복종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바르바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 적어 보세요.



3. 갈리나는 왜 그토록 바람 마을을 떠나고 싶어 했나요? 갈리나에게 닥친 어려움과 그때마다 갈리나가 느꼈을 마음을 짐작해 적어 보세요.



4. 크리코는 대통령 관저를 탈출해 바르바 곁으로 날아갑니다. 관저 정원의 식물을 가꾸며 편하게 지낼 수 있었는데, 크리코는 왜 이런 선택을 했나요?

III. 책을 읽으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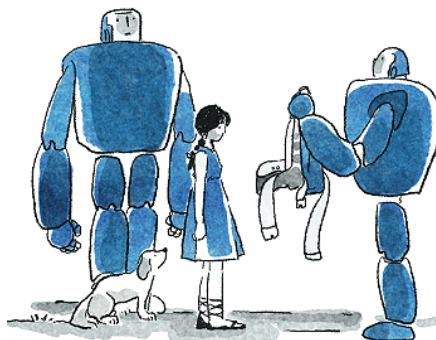
5. 우리는 흔히 로봇에게는 '마음'이 없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바르바와 크리코는 인간보다 더 진하게 연민, 후회, 죄책감, 배려, 우정, 호감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바르바와 크리코의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나는 부분을 책에서 찾아 적어 보세요.



6.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무엇인가요? 그 이유도 함께 적어 보세요.

● 인상 깊었던 장면 :

● 이유 :



"크리코와 내가 생각해 봤거든.
네가 원한다면 여기를 떠나
새 집으로 갈 수 있어."

"정말? 그게 될까?"

Ⅲ. 책을 읽고 나서

1. 바르바는 부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것으로, 크리코는 비윤리적인 사람들을 위해 일하지 않는 것으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두 로봇처럼 여러분도 스스로 생각하고, 주체적으로 결정해 본 경험이 있나요? 어떤 일이었는지,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적어 보세요.

2. 바람 마을 사람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전쟁은 모두에게 재앙이며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평소 미디어를 통해 접했던 전쟁의 참상을 보며 느낀 점이나 전쟁에 대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